

# 한화디펜스, '레드백' 軍부대 배치

(5세대 보병전투장갑차)

육군에 시제품 1대 무상 대여  
내년 기계화 부대서 시범 운용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활용 점검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미래형 궤도장갑차 레드백을 우리 군이 직접 시범 운용에 들어간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의 일환으로 레드백 보병전투장갑차를 내년 4월~6월 육군 기계화 부대에서 시범운용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레드백은 육군이 운용 중인 K21 보병전투장갑차의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최첨단 궤도장갑차로, 지난 2019년 9월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도입 사업의 최종 2개 후보 기종 중 하나로 선정됐다. 지난 1월 시험평가용 레드백 시제품 3대가 호주 육군에 인도된 후 화력과 기동, 정비·수송 등의 최종 시험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1분기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된다.

호주 육군의 시험평가가 끝난 후 국내로 운송되는 레드백 시제품 중 1대를 육군에 무상 대여할 예정이며 시범 부대는 시범운용 기간 ▲장비비용 교육 ▲영의도로 조종훈련 ▲소부대 전투기술훈련 ▲야지 조종훈련 등을 실시하게 된다.

육군은 시범운용을 통해 최첨단 기



미래형 궤도장갑차 레드백

/한화디펜스

술이 접목된 레드백 보병전투장갑차의 주요 기술과 성능을 파악하는 한편 향후 개발될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활용 가능 여부도 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전망이다. 호주에서 서식하는 붉은등 독거미 이름을 딴 레드백은 한화디펜스가 이스라엘과 호주, 캐나다 등 글로벌 방산기업들과 협력해 개발한 5세대 보병전투장갑차이다.

레드백엔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 방호 설계 및 강화구조가 적용됐으며 '암내장식 유기압 현수장치'를 탑재해 주행성과 기동성이 대폭 강화됐다. 또 복합소재 고무궤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 주행 시 진동은 최대 70% 줄어들며 소음도 현저히 감소한다. 여기에 내구도 증가로 인해 정비 수요는 최대 80% 줄어들고 차량 경량화로 연료는

30% 가까이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투기에 적용되는 최첨단 센서가 탑재된 것도 특징이다. 차량 내부에서 특수 '아이언 비전' 헬멧전시 기능과 첨단 전투기 레이더로 쓰이는 능동위상배열레이더(AESA)를 이용해 장갑차로 접근하는 적 대전차 미사일 등을 사전에 포착해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 능동방어체계가 주목됐다.

레드백엔 대전차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포탑'이 장착될 예정이며 주요 무장으로서는 30mm 주포와 7.62mm 기관포가 달린다. 차량에 열상 위장막을 두를 경우 적의 열상 감시장비 탐지는 물론 열추적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스텔스 차량'으로 변신도 가능하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 GS칼텍스, 320개 협력사 ESG 자가점검 지원

전문기관 연계 ESG 컨설팅 제공  
"협력사와 지속가능 상생 이어갈 것"

GS칼텍스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협력사 ESG 경영을 지원한다.

GS칼텍스는 오는 9월까지 협력사가 스스로 ESG 항목을 점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ESG 자가점검(평가)을 실시하고, 이후 진단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과 연계한 ESG 컨설팅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협력사 ESG 수준을 높여 GS칼텍스 공급망 전체의 ESG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GS칼텍스는 2019년 협력사 맞춤형 ESG 자가점검 모델을 개발했으며 지난해 107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자가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ESG 자가점검 대상을 320여 개 협력사

로 확대해 진행한다.

이번 GS칼텍스 협력사 ESG 자가점검(평가)은 전문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KPC), 퀀티파이드이에스지(QESG)가 함께 진행한다. 협력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GS칼텍스 협력사 전용 온라인 ESG 평가 솔루션'을 개발해 자가점검에 활용한다.

평가 문항은 인권 및 노동, 안전보건, 환경, 윤리 및 경영시스템 4개 분야로 구분되며 협력사 개별 특성에 따라 40~53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평가를 통해 협력사는 '정책·실행·컴플라이언스' 전반을 점검할 수 있고, 각 평가 문항에는 관계법령과 상세 해설이 안내돼 협력사의 ESG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참여 기업은 ESG 항목별 리스크 요

인과 개선사항에 대한 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공 받게 된다. GS칼텍스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해당 기업에 ESG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상생경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협력사 ESG 자가점검 지원은 협력사 내부의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해 GS칼텍스와 상호간의 거래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GS칼텍스는 협력사와 함께 ESG 경영 수준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상생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SK, 日 'TBM' 투자... 지분 10% 매입

인수 규모 약 1400억

SK가 일본 친환경 소재 기업에도 투자를 이어간다.

SK일본투자법인은 1일 일본 TBM 지분 10%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수 규모는 약 1400억원이다.

TBM은 친환경 소재 라이멕스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석회석 등 무기물을

50% 이상 포함해 플라스틱 소재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설립해 빠르게 성장한 유니콘 기업 중 하나다.

SK는 유럽연합과 중국 등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등 ESG 경영을 강화함에 따라, 라이멕스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일본투자법인은 이번



라이멕스

/TBM

계약으로 친환경적이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라이멕스를 한국, 미국 등에 판매할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juk@

# 갤럭시S21 울트라, '최고의 스마트폰' 선정

MWC 2021

삼성전자 다양한 기능·카메라 고평가

갤럭시S21이 또다시 최고의 스마트폰으로 등극했다.

삼성전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1에서 갤럭시 S21을 '최고의 스마트폰'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고의 스마트폰은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진행하는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Global Mobile Awards)'를 통해 진행된다.

모바일 전 분야의 뛰어난 혁신·하드웨어·소프트웨어·서비스를 선정해 최고 제품으로 발표하는 자리로, '최고의 스마트폰'은 성능 뿐만 아니라 디자인, 혁신, 사용 편의성, 사용자 경험, 신뢰성, 가성비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된다.

심사위원들은 갤럭시 S21 울트라 5G가 놀라운 AMOLED 디스플레이, 동급 최강의 카메라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역대 삼성 스마트폰 중 최고라



갤럭시 S21 울트라

/삼성전자

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최종 후보에는 '갤럭시 S20 FE'이 포함되기도 했다. 120Hz 주사율의 부드러운 디스플레이·AI 기반의 카메라 등으로 더 많은 소비자에 최고의 성능을 제공한 모델이다.

삼성전자무선사업부 마케팅팀장 최승은 전무는 "삼성전자는 모바일 혁신을 선도해왔으며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기를 선보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역동적인 니즈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 대한항공,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사업 참여

"다소 사 MOU 등 사업 준비 박차"

대한항공이 우리 공군의 정찰능력 향상에 힘을 보탠다.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에서 지난달 30일 공고한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사업(2차 사업)에 주 계약업체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대한항공이 사업 공고 직후 바로 참여 의사를 표한 것은 경험에 기반한 자신감의 방증이다.

백두체계능력보강사업은 우리 군이 1990년대 도입한 백두정찰기를 대체할 신형 정찰기를 만드는 사업이다. 백두정찰기는 공군의 핵심 정찰 전력으로 탐지 범위가 백두산에 이른다며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번 2차 사업에 앞서 이미 2011년부터 2018년까지 7년 여에 걸쳐 약 4,000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해 백두체계능력보강 1차 사업(1차 사업)이 진행됐다.

대한항공은 1차 사업에서 항공기 제조, 종합군수 지원, 감항인증 획득, 시험 비행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핵심적



백두체계능력보강사업으로 개발된 신형 백두정찰기.

인 업무를 수행했다.

군은 1차 사업으로 개발한 신형 백두정찰기의 성능이 만족스럽다고 평가하며 신형 백두정찰기를 4대 추가 개발하는 2차 사업을 결정했다.

2차 사업의 기간은 2022년 부터 2026년까지며 총 사업비는 8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1차 사업에 참여해 축적한 노하우가 상당한 만큼 2차 사업 또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며 "이미 다소사와 항공기 구매 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아시아나 전통문화 체험 무착륙 관광비행 기획

韓문화재단 협업, 체험키트 제공

아시아나항공은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7~8월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착륙 관광비행'을 만들고자 한국문화재단과 협업해 어린이들이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색 테마 비행을 기획했다고 1일 밝혔다.

7월 무착륙 관광비행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각 1편씩 운항한다. 다만 한국전통문화 테마 무착륙 관광비행은 인천국제공항 출발편에만 적용된다. 인천공항 출발편은 A380 기종으로 오는 31일 오후 12시 10분 출발해

부산, 후쿠오카, 제주 상공을 비행한 뒤 오후 2시 30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김포공항 출발편은 A321NEO 기종으로 오는 31일 오후 12시 40분 출발해 동일하게 부산, 후쿠오카, 제주 상공을 비행한 뒤 오후 3시 정각에 김포공항에 도착한다.

인천국제공항 출발 무착륙 관광비행 탑승 승객에게는 비즈니스 어메니티 키트 외에 전통 문화 체험 키트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 SNS에서도 무착륙 관광 이벤트를 진행하며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김수지 기자